

회의록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장 회의]

- 일시/장소 : 2022. 11. 25.(금) 16:00~17:05 / 예산담당관실
- 참석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 10명
 - 김주익(기획재정), 오병욱(소통행정), 조규호(시민안전), 엄양순(건강복지), 손보경(여성가족), 이배원(문화체육관광), 이규택(환경), 위고은(교통건설), 송용섭(도시건설), 장선자(IFEZ)
- 배석 : (시) 참여예산팀장 외 담당공무원 3명

위 원	발 언 내 용
참여예산팀장	<p>○ 11월 30일 위원님들 워크숍을 개최하신다고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같이 가서 함께 할 거고요 이제 그전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을 사전에 안내드리는 게 타당하겠단 생각이 돼서 급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p> <p>○ 회의 안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이제 오래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전액 다 반영은 못 했지만 지금 의회 예산이 넘어가 있는 게 주민참여 관련해서 514건에 229억 1900만원이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p> <p>참여형은 64건에 145억 7천만원 그다음에 협치형은 18건에 33억 7800만원이고요 민관협력과에서 추진했던 주민자치회형은 432건에 49억 71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p> <p>○ 규모는 이제 작년에 485억 상당에서 한 53%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줄인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줄였다고는 저는 그렇게 판단은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향후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규모나 이런 거에는 줄이자는 말씀이 아니고 연연하지 말고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충실하다 그러면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시 사항 등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고 그거의 일환으로 12월 15일날 2시부터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민단체들도 오시고 또 혁신단에서도 또 인천대 인하대 교수님 또 지방행정연구원 이렇게 같이 해서 한 여덟 분 정도 이렇게 해서 2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쪽 추진해 오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토론도 있을 거고요 보시면 시민단체가 이제 두 군데 단체가 계신데 평화복지연대 또 참언론시민연합 근데 그 단체에서 주장하시는 말씀도 계실 거고 그래서 조금 열띤 공청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p>

위 원	발 언 내 용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억 총괄위원장	○ 따로 공청회는 저희 주민참여 예산의 분과장님들이나 어떤 위원님들이 참석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참여예산팀장	○ 그때는 이제 패널로 참석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못 모셨고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 오셔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질문받고 하는 과정에 느끼신 거 또 건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그런 기회는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쪽 운영해 오면서 우리 시 조례가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 조치고 이제 저희가 와서 비교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장점은 좀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왔고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은 조금 일부 이제 조정을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이제 입법 예고를 23일날 했습니다. 의견 제출 접수 기간이 12월 13일까지인데 조례안도 있고 개정 사항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위원장님들 한번 보시면 좋은 의견 주시면 입법 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될 여지도 있으니까요. 참고 한번 해 주시면 되고
이배원 분과위원장	○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제목 순서 이런 거 보면은 시간이 시민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시간에 30분이 예정돼 있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시민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시간이 좀 제일 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여예산팀장	○ 네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 지금 질의응답 말씀하셨는데요. 또 토론 시간도 적다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조정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획상은 한시간 반 인데, 두시간 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고은 분과위원장	○ 지금 토론자가 여덟 분인데 1시간 반은 조금 짧아 보이긴 하네요
참여예산팀장	○ 네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위고은 분과위원장	○ 저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랑 지원 협의회 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센터 운영을 안 하고 지원 협의회 운영을 안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참여예산팀장	○ 그럼 조례 부분부터 말씀을 제가 좀 말씀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26쪽부터 말씀드릴게요 별첨2에 26쪽입니다. ○ 개정안 2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데 기존에는 기존 조례는 주민의 정의를 조금 제한적으로 해놓으셨었는데 저희가 주민 참여 범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대구시 조례를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주소는 인천으로 돼 있지 않지만 인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니는 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규정이 돼 있어서 내용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도 좀 저희들이 원용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 권리 부분 4조에서 이 조례도 저희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위 원	발 언 내 용
	<p>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 광역사무와 기초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 없이 이거를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협력과에서는 읍면동까지도 시에서 다 커버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광역 행정하고 기초 행정하고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까지는 주민자치형 읍면동형까지 지원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군구에서 지원을 군구 지원협의회 또는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한두 건 이렇게 숙원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이 올라온다 하면 그것은 별도로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물론 그렇게 검토해서 올라오더라도 기존에는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주민참여 예산 관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원협의회 역할까지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5조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래서 조례를 새로 전면 개정하면서 시의회에서도 조금 역량 있는 분들을 추천받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시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추천을 일정 분을 추천받아서 위촉하려고 합니다.</p>
김주익 총괄위원장	○ 그러면 팀장님 기존의 군구 추천이 시의 추천으로 바뀐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인가요?
참여예산팀장	○ 중복이 아니라요 군구는 군구에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시주민자치위원회는 시에서 하겠다. 이겁니다.
김주익 총괄위원장	○ 행여나 우려되는 게 이제 이게 공개 모집하는 인원과 시의회의 추천과 시장님의 추천의 비율이 혹시라도 이제 기존과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참여예산팀장	○ 기존에 기존에 해오셨던 비율이나 이렇게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율은 참 잘해왔던 제도예요. 그런 거는 흐트러지지 않고 좋은 부분은 더 챙겨서 갈 겁니다.
이배원 분과위원장	○ 그런 부분은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네요
참여예산팀장	<p>○ 지역 대표성 성별 대표성 연령별 대표성 이런 부분은 안분을 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잘 설계를 해나갈 겁니다.</p> <p>○ 그리고 이제 10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에 이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기존에는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별로 각 해당 실국하고 협의하실 때 협의회가 잘 안 된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운영할 때는 해당 주무부서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지정을 해서 명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협의회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거를</p>

위 원	발 언 내 용
	해소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주무 부서에 담당 사무관을 참석시켜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주억 총괄위원장	○ 사무관님이 간사를 하신다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 3항에 보면 3항이 지금 삭제가 됐는데 이게 분과위원회 위원을 15명 내외로 구성이 이제 삭제가 되면 15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인원 제한을 안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참여예산팀장	○ 정원이 200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과위원회 수에 따라서 현재 재직하고 계신 위원님들 수를 고려해서 안분을 해야 되겠죠.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원하시는 데가 계시고 하면 우선 배치하고 좀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지역별 성별로 이렇게 안분을 해서 그렇게
위고은 분과위원장	○ 전문가랑 이렇게 좀 비율을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참여예산팀장	○ 네 그렇게 해야합니다.
손보경 분과위원장	○ 그러면 이 간사는 1인만 둔다. 이 것은 그전에는 간사가 2명이었는데
김주억 총괄위원장	○ 그 자리 두명은 되고요
손보경 분과위원장	○ 원래 기존에 있던 4항에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삭제되는 거고 7항이 신설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그러면 분과위원회 안에는 간사를 두지 않는다는 내용인 거예요?
김풍현 주무관 (배석)	○ 기존 간사는 주무부서의 담당이고 그리고 민간 한 분 그러니까 위원님들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총 두 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는 간사님의 역할이 좀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희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간사 이렇게 세 분께서 그냥 회의를 잡으시는데 잘 협조도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아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는 행정으로 뒤서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손보경 분과위원장	○ 그러니까 간사는 한명이라는 거죠? 민간 간사는 없애겠다.
참여예산팀장	○ 네. 32쪽 7항에 나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분야별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계시고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당 실국 주무과의 주무담당 사무관이 회의나 이런 거를 다 서포트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손보경 분과위원장	○ 이게 사실 각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사실 하고 싶지 않아서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워낙 각자의 담당 부서의 일이 바빠서 이것까지 신경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 여기에 전담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배치할 여력이 되는 거예요? 각

위 원	발 언 내 용
	<p>담당 부서하고 이게 상의가 된 내용인가요? 나중에 만약에 간사가 됐는데 그 간사마저도 그때 간사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분과위원회가 굉장히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걸 담당 부서들하고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 그렇게 참여 예산 위원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담당자를 그래도 배치를 하겠다라는 이 정도의 이야기는 되어야 분과가 잘 운영되지 않을까요?</p>
참여예산팀장	<p>○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을 위한 담당 사무관이나 직원을 그 주무과에 전임에서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주무부서의 주무 담당 사무관이 하지만 그 밑에 또 보조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역할을 서포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분과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목소리도 높이고 했는데 예산도 아예 신지 않아서 제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반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셔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그 단계는 벌써 우리 시가 2010년대 초반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인지는 하고 계세요. 그거를 지금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물론 이제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는데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려를 할 건데 이렇게 전임 내지는 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만 이렇게 해서는, 좀 중점을 뒀서 당연히 하긴 하겠죠.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p>
손보경 분과위원장	<p>○ 워낙 사무가 다 이제 시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없어지고 이게 시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촘촘하게 계획이 되지 않으면 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보여서요</p>
참여예산팀장	<p>○ 좀 우려가 되는 우려가 되시는 거는 주민참여단 지원센터에서 한 역할과 기능이 훌륭하셨고 잘해오셨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심분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부담도 되고요 그렇지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제가 한 명 더 달라고 조직팀에 얘기해서 1월 초에 하나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p>
이규택 분과위원장	<p>○ 센터가 있어도 지금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그게 없어지면서 주무관님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어느 정도 저는 이게 과연 진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전문 부서가 있어도 좀</p>

위 원	발 언 내 용
	이렇게 안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되셔서 위원장님께서 더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제 내년도 이제 초년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식시켜 주셨으면
이배원 분과위원장	○ 자체 감사보다 사무관을 감사로 하면은 괜찮겠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규택 분과위원장	○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촘촘하고 좀 더 꼼꼼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팀장	○ 위원장님 담당 사무관을 이렇게 해놔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뭐를 주도적으로 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6급이나 7급 직원이 가서 서포트를 할 건데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배원 분과위원장	○ 시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건 비율이 어느정도인가요? 이 주민참여의 의미가 잘못하면은 그런 식으로 다 참여가 되면 퇴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점이나 그런 부분도 시의원들이 여기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참여예산팀장	○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의원을 제외한 시민들 중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 그리고 이제 27쪽에 보시면 기존에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사업 심사를 하실 때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셀프 추천 셀프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협의회나 또 민관협의회나 이런 데서 그런 상황이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주익 총괄위원장	○ 팀장님 거기 그러면 4번 항목에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 가능. 이건 어느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제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위원님께서 A단체에 관여하시는데 A단체 누구한테 얘기해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제안하라 해놓고 그 A위원이 A사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김주익 총괄위원장	○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촉을 할 때는 필히 이제 저희 분과장단 회의를 한번 경유를 해 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 당연히 경유 해야지요.
김주익 총괄위원장	○ 왜냐면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약간의 공정성이 좀 위배가 돼서 사실은 아닌데 그런 뉘앙스로 보여져서 해촉되는 경우가 저희가 사실은 이해관계 관련해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원래 자체적으로는 심의 의결을 못하게끔 암묵적으로 다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죠?

위 원	발 언 내 용
참여예산팀장	○ 네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손보경 분과위원장	○ 그 앞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팀장	○ 운영위원회라는 규정은 우리 조례는 없었고요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하시는 회의가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대구 광역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모시기 힘들 경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 또 총위원장님 총부위원장님 이렇게 모이셔서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 역할을 대행하시는 겁니다.
손보경 분과위원장	○ 이 회의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따로 있는 건가요?
참여예산팀장	○ 근데 이 회의가 결국은 나중에는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고은 분과위원장	○ 없던 조항이 생기는 건가요?
참여예산팀장	○ 그렇습니다.
김주억 총괄위원장	○ 내년부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제 분과장단 회의가 분과장 운영위원회 이렇게 바뀌겠네요
참여예산팀장	○ 그리고 이제 1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 기능을 저희들이 명칭은 예산 학교 운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장선자 분과위원장	○ 그런데 위탁 가능이라고 되어있네요?
참여예산팀장	○ 그러니까 이거는 센터처럼 그렇게 직원을 두어서 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두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금처럼 2년 3년 계약해서 전임으로 이 업무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 교육이다. 그러면 기본 교육은 평생 교육 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그런 기관에 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억 총괄위원장	○ 팀장님 이거는 그럼 주관 부서는 참여예산팀에서 하나요?
참여예산팀장	○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할 겁니다.
김주억 총괄위원장	○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상 내년도 3월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3월부터 교육들이 연달아 계속 잡힐 텐데 이 부분하고 실제 분과별 회의 일정하고 이런 게 계속 겹치지 않게 하려면 이것도 사실은 운영의 묘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기본 교육이나 심화 교육을 받는 와중에 또 그 주에 또 분과 조직이 갖춰지고 막 이러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주민 참여 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여러 번 해오면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리드미컬한 일정 관리를

위 원	발 언 내 용
	<p>해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예산담당관실로 짝 가버리면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또 그럴까 봐요</p>
참여예산팀장	<p>○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 또 이해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게 한번에 완전히 바뀌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7명이 현원이신데 내년에 3번 하셔서 임기를 마치시는 분들이 38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의사를 또 여쭙보고 하면은 조금 일정 부분 이렇게 교체가 되시겠죠. 그러면 기본 교육을 받으셔야 할 분들도 계시고 또 심화 교육을 받으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임기가 시작될 때는 저희들이 한 번 다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모셔서 개략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하셨던 분들한테 강의 내지는 교육 내지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모시려고 합니다.</p> <p>○ 이제 말씀드릴 게 16조 이제 재정 및 심리 지원 이제 이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기존 조례에는 이렇게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실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참제가 와서 조금 이게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명시적으로 해서 회의 참석 수당하고 실비 부분이 조금 현실화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34쪽 보시면 되는데 16조 2항에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분과위원장님들 회의할 때하고 분과위원들하고 회의할 때하고 회의 수당이 차별화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동일하게 회의 개최 횟수를 줄이더라도 회의 참석 수당은 동일하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해서 의회에 넘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6조 3항에서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 사무관이 되겠죠.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 장소 및 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강제성을 조금 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면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넣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7조에 보시면 그동안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모니터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기존 조례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을 좀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p>
손보경 분과위원장	<p>○ 지원은 안 하는데 군구별 평가는 하네요?</p>
참여예산팀장	<p>○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이제 군구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원을 안 하지만 재원조정 교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일 년에 한 8천억 정도를 군구로 줍니다. 기존 재정 수요 기준 재정 수입 산정을 해서 교육청으로도 한 그 정도 예산을</p>

위 원	발 언 내 용
	<p>주고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군구에서 주민참여 예산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p> <p>○ 그리고 이제 18조 이 규정도 없었는데 뭐냐 그러면 포상 관련해서 표창이나 포상할 수 있는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고 제안하시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대응하려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23일 날 저희들이 지금 입법 예고도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심사숙고에서 한 회의를 한 다섯 번 하고 타시도 사례 이렇게 다 수집해서 했는데 혹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좋은 의견 주시면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그때 조금 이렇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이배원 분과위원장	○ 회의 날짜와 서류 요구 등 급박하게 일정 조율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참여예산팀장	○ 통상적으로 회의할 때 시에서 안전이 있을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는 회의 안내와 자료를 드려야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계획, 조례 등 반영하여 고민하도록 하겠음.
손보경 분과위원장	○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 개의 분과가 있다보니 센터가 없어지면 장소의 문제가 생김.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걱정이 됨. 회의 장소가 부족함.
장선자 분과위원장	○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과별로 회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조율이 힘들었음. 센터가 없어지면 시청 회의장소도 부족함.
김주억 총 위원장	○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은 언제쯤 나오는지?
참여예산팀장	○ 내년 1월 17일 첫 임시회 개최 후 조례가 확정되고 2월 초 정도가 될 것임.
김주억 총 위원장	<p>○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매월 시행해야할 일정들은 그대로 내년에도 진행된다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가장 문제임.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분과들이 한 곳에서 일정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시청 주변에 임대할 수 있는 곳이라던가 준비와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임.</p> <p>○ 또한 내년도 위원회 규모도 올해와 동일하게 200명 수준으로 가는지?</p>
참여예산팀장	○ 새로운 조례안에도 200명 정원 유지로 되어있음.
오병욱 분과위원장	<p>○ 시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회의 일정과 시간을 위원 모집 시에 공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p> <p>○ 또한 위촉된 위원 중 참석을 아예 안 하는 위원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음.</p>
위고은 분과위원장	○ 해촉사유 중 분과위원회 개최 3회 이상 연속 불참 시 해촉의 사유가 된다는 이런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
장선자	○ 정족수의 문제가 큼.

위 원	발 언 내 용
분과위원장	
김주익 총 위원장	○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을 정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족 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할 것임. 활동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임을 받는다거나 혹은 회의에 3번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 해촉된다던가 하는 운영안이 필요할 것임.
오병욱 분과위원장	○ 3년 연임 기간 내 100% 참석 위원들은 연임 제한 없이 희망하면 위촉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함. ○ 연임 위원이 없으면 사업심사 요령이라던가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으로 분과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고려해주셨으면 함.
송용섭 분과위원장	○ 지금 현재 위원회가 공개모집 인터넷 신청이 있고, 구에서 추천, 군에서 추천하는 게 있음. 인원이 15명이면 8명이 과반수 이상인데 한 번도 안 나오는 위원들 때문에 성원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음.
참여예산팀장	○ 운영계획 만들고 첫 임기가 시작될 때 그런 부분들을 고지하도록 하겠음. 3번 이상 연속으로 안 나오신다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지를 하겠음.
김주익 총 위원장	○ 그 3회를 워크숍부터 해야 함. 워크숍 때 위촉장 받고 분과위원회 개최될 때 한 번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음. 워크숍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서의 자격 요건에 대해 공지하고, 서약서 등을 받아도 좋을 것임.
위고은 분과위원장	○ 매년 참여예산제도가 조금씩 바뀌는데 워크숍에 빠지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회의에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숍부터 체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김주익 총 위원장	○ 정족수를 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주십사 말씀드림.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 미리 찬반 의견을 묻는다거나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정족수를 같음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 아까 오병욱 분과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기획재정분과 제안사업 중에 있었음. 내년도에 위원회 위촉할 때 3년간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각 분과별로 우수 분과위원 1명 정도를 추천 받아서 멘토 개념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음.
참여예산팀장	○ 서울 2년, 부산 4년, 대구 2년, 광주 4년, 대구 4년임.
김주익 총 위원장	○ 지자체 구청같은 경우는 한 번 선임되면 2년에 2번 연임 가능함.
김주익 총 위원장	○ 그리고 여기 부과장님들 다 모이신 김에 30날 송도 컨벤시아에서 저희들 마지막에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현재 그게 마지막이죠. 팀장님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또 있나요.
참여예산팀장	○ 거기서는 아직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제 이 내용 오늘 회의하신 내용도 첫 장 1쪽 이쪽은 우리 회의 자료에 넣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 위원회 경과 보고 활동 영상 그다음에 운영 성과 개선 사항 토론

위 원	발 언 내 용
	그다음에 감사 인사 시간, 아마 3년 연임으로 해서 이제 퇴임하시는 위원님들 나와서 간단하게 소감 말씀하고 이런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올해 많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되는 전체적인 총회이기 때문에 각 분과에 활동하셨던 위원님들한테 홍보 좀 잘해 주시길 바람.
오병욱 분과위원장	○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전체 위원장이 총 위원장이든 운영위원장이든 명칭을 정해주시기 바람.
위고은 분과위원장	○ 131쪽 7항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관 공동 간사 2명을 두게 되어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간사 2명인건지?
참여예산팀장	○ 이 간사는 예산담당관님과 위원장단 중에 간사가 한 분 계신 것을 의미함.
손보경 분과위원장	○ 그동안에는 몇 개의 분과를 묶어서 민간지원관이 잘 해주셨는데 이제는 지원관 제도는 내년에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무부서가 지원을 하긴 하지만 주무부서의 지원은 회의장소, 자료 만들어주는 정도를 해주실 것 같은데, 참여예산팀에서 그 부분을 같이 담당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팀에서 분과별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참여예산팀장	○ 조금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데 분과위원회 주무부서 담당 사무관께서 주도적으로 민간 지원관 역할까지 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1개 국에 보면 4개 5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각 분과에서 요청하시는 부분을 지원해줘야 함.
김주익 총위원장	○ 염려스러운 건 이제 각 분과별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거기 담당 주무관 분을 간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행여나 그분들이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안 바뀌고 잘 가시면 가장 좋음. ○ 바뀌더라도 그 밑에 멘토 멘토처럼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가면 좋은데 정말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연락하면 서로 바빠질 수 있는 거니까 일정은 적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염려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회의 종료 -	